

# 지식정보 사회의 미래상 엿보는 책 읽기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22@naeil.com  
 도움말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지연 교수(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자료 커리어넷 학과 정보 ·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

## 지금 문헌정보학과는?

## 현장성 강한 학문의 특성 이해 필요

고문헌부터 현대의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문헌을 효과적으로 수집·처리·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배운다. 졸업과 동시에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다. 졸업 후 진로는 도서관 사서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웹 콘텐츠 기획자, 정보 검색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으로 진출 분야가 폭넓어지고 있다.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는 “현장성이 강한 학문으로 대학에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많이 한다. 자기 주도성, 창의성, 글쓰기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등이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대학이 말하는 문헌정보학과

## 지식정보 사회 건인하는 융복합 학문

“

4차 산업혁명에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력을 대체한 이전의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능’은 판단력을 의미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방대한 빅데이터 집단에서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관리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미래 데이터 기반 시대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문헌정보학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_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

사람 중심의 학문으로 인문학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는 동시에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하나의 전공 안에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학문 간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최적화된 학문입니다. 대학 입학 전에는 이러한 학과의 특성에 맞는 적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해보길 바랍니다. \_연대세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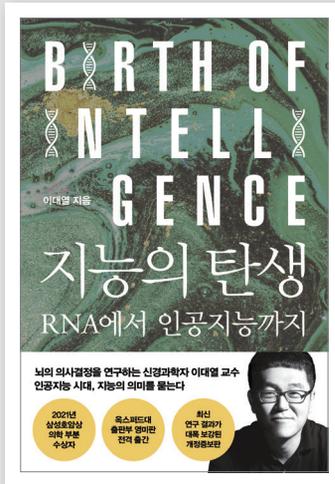
”

새로 보는 전공 적합률

문헌정보학과



# ONE PICK!



## 지능의 탄생

지은이 이대열  
펴낸곳 바다

## 문헌정보학의 주요 주제인 ‘지능’에 대한 고찰 돕는 책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인종차별·혐오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루다의 사례처럼 인공지능이든 사물인터넷이든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한다.

남 교수는 “사서가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의미 있는 책들을 선택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과 같이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의미하고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기계에게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 책은 지식정보 사회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문헌정보학이 주요하게 다뤄야 할 ‘지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돕는다. 문헌정보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했다.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인 지은이는 인공지능 시대 지능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지능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복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명 현상의 일부라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자기 복제를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300쪽이 넘는 분량에 내용도 다소 깊은 편이지만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의 진화, 지능과 학습 등의 차례를 따라 찬찬히 읽으면서 미래의 문헌정보학도에게 필요한 비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진로 추천 도서			
제목	지은이	출판사	리포터의 한 줄 평
사서 그리고 길	노경국	한국도서관협회	'사서 취업 설명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 자격증 취득부터 채용 현황, 직업 전망 등을 총망라한 책.
사서가 말하는 사서	이용훈 외	부키	사서의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책.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1명의 사서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사서 생활 보고서.
Looking for Information	CASE, Donald Owen	Emerald Group Publishing	원서지만 어렵지 않아 고등학생도 읽어볼 만하다고 이 교수가 강추한 책. 문헌정보학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엿볼 수 있다.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Edward R. Tufte	Graphics Press	정보 시각화에 관한 책으로 최신 트렌드의 정보학을 맛볼 수 있다. 책에 실린 그림 위주로 봐도 좋다. 이 교수는 지은이의 다른 책들도 두루 접해보라고 권했다.

네 꿈을 응원해!  
선배의 독서와 진로 이야기



**이세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 “〈문헌정보학의 이해〉 〈생각의 탄생〉 추천해요”

### Q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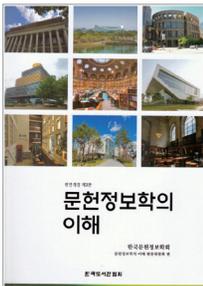
어린 시절 모형 자동차 같은 물건을 모으는 걸 좋아했고, 저만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해보곤 했어요. 중·고교 진학 후 학습한 지식, 읽은 책, 컴퓨터 파일, 학술 논문 등을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아카이빙과 분류로 이어졌습니다. 더 잘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문헌정보학의 세부 분야인 정보조직학·학술커뮤니케이션·텍스트 마이닝 등에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진학을 결정했어요.

### Q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국내외 주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iSchool(information school; 정보 대학)로 변화하며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문 계열 중에서 컴퓨터공학적인 요소가 가장 큰 분야가 문헌정보학인 것 같아요. 인문·사회과학 계열과 이공계열 지식에 동시에 흥미를 느낀다면 꼭 문헌정보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Q 주로 어떤 책을 읽는 게 진로에 도움이 될지?

독서에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요.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문헌정보학의 이해  
지은이 문헌정보학회  
출판사 문헌정보학회

### 전공 공부에 대한 간접 체험 돕는 입문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문헌정보학 개론서입니다. 대학 전공 서적이라 학술적인 내용 중심에 있어 고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책을 통해 간접 체험해보는 생각으로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독보다는 대략적으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세요.



생각의 탄생  
지은이  
미셸 루트벤스타인·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옮긴이 박종성  
펴낸곳 예코의 서재

### 문헌정보학과 지망생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라는 부제에 책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제인 구달 등 인류 역사에서 창조적인 천재로 손꼽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사고를 발전시킨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문학, 수학, 과학, 미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된 발상법을 다뤘다는 점에서 문·이과를 넘나드는 관심사를 가진 문헌정보학과 지망생에게 유용한 책이에요. @